

## VI. 여성 리더십에 대한 성서적 이해

앞장에서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남녀가 모두 성령을 받고 종족, 계급, 남녀의 차별을 모르고 평등한 관계로 함께 섬겼던 은사공동체가 점점 여성들을 차별해서 남자들만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교회체제로 변해갔다는 사실과 그 후의 교회여성 리더십의 평등성을 회복하려는 투쟁 역사를 보고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 리더십에서 여성들을 제외하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본 장에서는 교회에서의 남녀 평등성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성서본문들을 세 부분 즉, 창조설화와 여성, 사도바울과 여성, 예수 그리스도와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A. 창조설화와 여성 (창 1-2 장)

우선 구약의 창조설화부터 시작해 보자. 창세기에는 창 1: 1- 2:4 과 2: 4-25 절의 두 개의 창조설화가 있다. 창세기 1:1-2:4 에 기록된 제 1 창조설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동물, 식물을 다 창조하신 후 마지막에 인간을 남,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각 동시에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다. 창세기 2:4-25 에 기록된 제 2 창조설화에서는 사람을 먼저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중에 그 사람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무오설(성경의 글자 한자한자가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을 주장하는 근본주의 학자들은 이 두 개의 기사가 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요, 이중으로 말한 것은 창조 역사를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며, 창조설화를 비판하고 해석할 필요없이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서해석에 역사비평, 문학비평, 본문비평 등을 용인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두 창조설화는 두 저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기록했으므로 그들이 의도한 각각 다른 역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창조설화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독일의 구약신학자 Von Rad, 미국의 Walter Brueggemann, 그리고 한국의 김정준 박사 등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그룹에 속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조설화의 자료와 연대에 대하여 제 1 창조설화의 자료는 제사문서 (Priestly source =P) 라는 자료에서 왔고, 제 2 창조설화는 야웨문서(Jehovah =J) 에서 왔다. 제 1 창조설화는 주전 586 년에 유대나라가 바벨로니아로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기록되었고 제 2 창조설화는 주전 950 년경, 솔로몬왕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연대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창조설화의 동기, 역사적 배경, 설화의 구조, 표현, 강조점과 그 신학사상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한다.<sup>1</sup>

말하자면 제 1 창조설화의 배경은 P 문서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서럽게 고생하며 살고 있을 때이다. 그는 후 세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주위의 이방신보다 우월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과 비교할만한 신이 세상에 없다는 야웨

<sup>1</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서울: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1.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 그들의 자긍심을 복돋아주어야 했다. 포로생활에서 절망을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조롱에 대해 “자기들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창조 신앙고백으로 응수하게 했다. 특히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주신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자 하였다.<sup>2</sup>

제 2 창조설화의 연대를 대체로 B.C. 950 년이라고 보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왕의 치세시대이다. 솔로몬 시대는 정치사적, 경제사적,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전무 후무한 황금시기였다고 한다. J 기자가 관심한 솔로몬시대는 이스라엘 왕국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주권국가로 당시 중동세계를 지배할만큼 큰 세력을 떨치던 시대이다. 저자는 솔로몬왕의 횡포, 부와 사치의 결합, 국가 재원낭비(왕상 4:22-23), 강제노동 및 과도한 징세제도에 대한 백성들의 원한과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인간의 반역을 그 근거에서부터 파헤친다. 그러므로 남존여비가 창조의 중심사상이 아니라 어느 이방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야웨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범죄상을 고발함이 창조기사의 근본목적이다.<sup>3</sup>

창조설화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창조설화에서 남녀동등관계에 대해 쟁점이 되는 다음의 다섯본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본문들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역사비평, 문학 비평, 본문비평의 빛 아래서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시하게 한다. 문자그대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쟁점 1. 창 2:7,22**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를 창조하셨으므로”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 않고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이다.

**쟁점 2. 창 2: 21-22:** “여자가 남자의 갈비에서 나왔으므로”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 않으며,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쟁점 3. 창 2: 18-23:** “여자는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으므로”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 않으며 남자를 섬기는 존재이다.

**쟁점 4.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었으므로(2:23)**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 않고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쟁점 5. 창 3:6-16:**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 남자보다 더 죄인이고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 않고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이미 창조설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성불평등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이제 반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쟁점 1 . 창 2:7, 22**의 남,녀가 창조된 순서가 우월과 열등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해 칼빈은 창조된 시간의 차이 때문에 남자가 우월하다는 가정에 허점이 있음을

<sup>2</sup> 위의 책, 22-27, 42.

<sup>3</sup> 위의 책, 46.

지적하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세례를 받았으나 예수보다 위엄이 덜 하던 것을 예로 든다.<sup>4</sup>

창세기 2 장 7 절은 다음과 같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담”은 남성라는 뜻도 아니고, 남자의 이름도 아니다. “아담”은 아직 성이 구별되지 않은 단순한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한글성경은 18 절에서부터 “아담”을 “남자”로 번역하고 있으나, 남성을 여성과 성적으로 분리해서 단독으로 언급하는 용어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23 절에 가서야 아담으로 부터 여자를 창조하는 사건과 함께 비로소 사람을 남성(ish)으로 칭하는 특별한 히브리어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성이란 것이 여자와 남자에게 동시에 부여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남성으로서의 남자는 여성으로서의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지 않았으며 여자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sup>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남녀 두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주신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남자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 남녀가 평등함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렇게 제 2 창조설화에 나오는 창조질서를 이해하면, 제 1 창조설화에 나오는 창조질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 제 1 창조설화는 창조질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adam)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adam)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 1:27).

영어로 보면 다음과 같다.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ada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은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한 양성을 지닌 한 생명체라기 보다 도리어, 남자와 여자 두 생명체 모두를 일컫는 용어이다. 여기에 나타난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 되었다고 증거한다. 그러므로 창조의 순서가 우열을 정하는 잣대가 된다고 해도,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으므로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논리는 서지않는다. 창조의 순서를 갖고 논하자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제 1 창조설화에서는 인간이 모든 생물보다 제일 나중에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생물보다 열등한 존재란 말인가?

**쟁점 2. 창 2: 21-22 의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므로” 여자는 열등하므로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 논리는 창조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에 중점을 둔다. 여자가 남자로 부터 왔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논지이다. 그렇다면, 아담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아담이 흙보다 열등한가? 그렇다면 재료를 우열의 근거로 들어 갈비가 흙보다 나은 재료이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다고

<sup>4</sup> Jane Dempsey Douglas, *Women Freedom & Calvi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57.

<sup>5</sup>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156.

할 수 있는가? 남녀를 창조하는데 사용한 재료와 창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사이의 상호성과 친밀감을 말하고 위계제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고 창세기 주석학자들은 말한다. 남, 녀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으니 귀중하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고 열등하다거나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본문에는 없다는 것이다.<sup>6</sup>

또 다른 반론은 이러하다. 남자는 여자를 창조하는 일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탄생에 참여한 자도, 목격한 자도, 의논 상대자도 아니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 역시 그 생명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남녀가 모두 천연적인 재료인 흙과 갈비로부터 창조되었다. 갈비뼈는 연대성과 동등성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sup>7</sup> 그러므로 재료 스스로가 어느 것이 낮고 어느 것이 못하다고 감히 하나님이 사용하신 재료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쟁점 3. 창 2: 18-23의 “여자는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으므로”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 않으며 남자를 섬기는 존재**라는 주장에서 “돕는 배필”을 의미하는 “에젤(ezer)”란 단어는 구약에서 20 여회 사용되는데(시 121 편 등) 언제나 위기와 역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용된다. 이는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내조자로서의 도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도움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인격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뜻한다. 또한 “배필”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짝을 맞출 때 두 편이 꼭 맞는다는 뜻으로서 대등성과 상호성의 의미를 함축한 파트너십을 의미한다.<sup>8</sup> 에젤(ezer)을 영어로 helper(도우미)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영어의 도우미(helper)가 의미하는 보조(assistant), 종속(subordinate), 하위(inferior)란 뜻은 히브리어 에젤(ezer)에는 없다. 오히려 ezer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우월한 분으로 묘사할 때 쓰인 말이다.<sup>9</sup> 주석학자 Roop도 “돕는배필”이란 구절에 남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뜻이 없다고 해석한다.<sup>10</sup>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 J 기자의 의도는 결코 남편을 보조하는 아내의 입장이 아니고 “그녀가 없으면 인간 자신의 존재가 혼자만으로 되어 버리고 그렇게 혼자만의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므로 남녀는 상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 도우미라고 한다. 즉 남자만의 인간은 인간의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에게서 창조하셨다. 여자의 창조기사가 “남자의 우위사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두 인격이 합해서 비로소

<sup>6</sup> Eugene F. Roop, *Genesis in 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7), 323-324.

<sup>7</sup>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96-102.

<sup>8</sup> 배현주. “여성안수는 성서적이다,” <여성안수에 관한 자료 모음집> (서울:대한예수교 장로교(통합) 전국여교역자 연합회, 1992), 60.

<sup>9</sup> Trible, 90.

<sup>10</sup> Roop, *Genesis*, 323.

인간이 되고, 서로 차별이 없고 종속관념을 용납하지 않는 분신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sup>11</sup>

**쟁점 4. “남자(ish)에게서 나왔으니 여자(ishshah)라고 부를 것이다”(창 2:23)** 이 구절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의 이름이 아니다.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가 의미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배필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성(sexes)일 뿐이다. 여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통명사이지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것은 성(gender)을 지적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아니다. 아담은 여자(ishshah)와 남자(ish)라는 말로 성(sexuality)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세를 주장하는 명령의 행위가 아니고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해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sup>12</sup>

**쟁점 5.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 남자보다 더 죄인이고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 않고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담은 나무랄 데 없고 오직 이브만이 죄를 지었다는 주장을 칼빈은 부정한다.<sup>13</sup>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먹으라고 할 때 남자는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유순하게 받아들였다. 그 설화 속에는 남편이 그 일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렸다는 묘사가 전혀 없다. 그는 신학적으로 사변하지 않았다. 그는 깊이 고려하지도 않았고, 묵묵히 순종했다. 남자는 지배적이지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으며 결정을 내리는 자도 아니었다. 금지령을 여자보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2:16) 남자는 질문이나 어떤 논평도 없이 그의 아내를 추종했다. 여자는 먼저 선악과를 먹자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남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조차 못하는 듯이 묵묵히 여자와 함께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으니 공범이고 피장파장이다. 이러한 진술은 본문에 대한 가부장적 해석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것이다.<sup>14</sup> 남성이 자발적으로 타락에 동참했음을 강조함으로써 특정한 성, 즉 여성은 유혹에 약한 존재이면서 남성을 유혹하는 자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뒤엎고 타락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다.<sup>15</sup>

J 기자는 그가 살던 솔로몬 시대가 비록 이스라엘 역사상 번영과 안정을 누린 황금시대라 하지만 그 에덴은 인간의 교만, 불신, 반역, 이기심,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사치 등의 죄로 인한 상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나라 현실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하고 있다. 솔로몬의 국가건설, 경제부흥, 생활안정, 철통같은 군대조직과 안보는 솔로몬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끌어올린 결과라고 보았다.

<sup>11</sup> 김정준. 율법서, 70-71.

<sup>12</sup> 이우정. 158.

<sup>13</sup> Douglas, *Women Freedom & Calvin*, 57.

<sup>14</sup> Tribble, 113 과 이우정, 161 참고.

<sup>15</sup> 이정숙. “한국개신교 여교역자의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2003 년 42 호, 4

J 기자는 솔로몬 왕권이 만든 에덴은 상실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 권력은 망한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한다.<sup>16</sup>

위의 다섯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자를 열등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하나님이 여성을 열등하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성들의 가부장적 해석이지 본문이 뜻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현재까지 여성의 열등, 즉 남녀성의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온 본문들이 오히려 남녀의 평등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반론과 재해석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평등하게 창조하신 원래의 거룩한 뜻을 회복하고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사도바울과 여성

### 1. 남녀 관계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도바울의 권면

교회에서 남녀성의 불평등을 주장하여 여성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도바울의 다음과 같은 본문을 그 근거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남녀 평등관계에 대해 쟁점이 되는 바울의 본문들 중에서 다음의 두 대표적인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과 그 반론과 재해석을 소개한다.

**쟁점 1. 고전 14: 33-35 -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쟁점 2. 고전 11: 3-5 -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과 14장을 세 가지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 그 첫째는 위의 두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위의 두 본문은 진정한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이름을 사용해 후대 사람이 써 넣었다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셋째는 위의 두 본문을 다 사도바울 자신의 말로 인정하고 왜 그런말을 했는지 그 당시의 배경(context)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쟁점 1.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고전 14: 33-35. 표준새번역).**

**첫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입장**

고전 14:34-35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본문이 남녀는 불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해석해서 교회에서는 여자는 장로나 목사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음이 불변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입장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본문을 읽으면 바울은 가장 심한 여성적대주의자나 남성우월주의자가 되어 버린다. 진정 사도바울이 그런 분이었던가?

**둘째, 후세대의 삽입이라 보는 입장**

<sup>16</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61.

이 문장이 원래 바울의 말이 아니고 후대의 삽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갈 3:28 과 고전 11:11 에서 여자들의 평등한 리더십에 대해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밝힌 바울이 “여자는 잠잠하라”고 입장을 가볍게 뒤집었을 리가 없으므로 이는 분명히 교회가 가부장적으로 변화하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이 삽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sup>17</sup>

### 셋째, 바울의 말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야 했던 배후가 있다고 이해하는 입장

칼빈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바울의 말은 역사적으로 조건에 따른 (conditioned) 충고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것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예의범절의 문제라고 밝힌다. 바울이 주님의 사역에 여성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겸손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sup>18</sup>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의 고린도의 상황을 성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당시에 고린도에 사는 많은 여성들은 디오니소스신, 아이시스신등을 섬기는 동방종교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종교들의 특징은 열광적인 예배에 있었다. 가부장문화 속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살아야 했던 이 시대의 여성들은 모든 사회의 규율을 깨고, 마음대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황홀경에 빠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에 매혹되어 있었다. 이러한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교회의 여성들 중에는 동방종교 신봉자들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예배중에 떠들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은 방언이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생각했으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믿었는데(고전 12:7),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공동예배의 품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비적 열광 상태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바울은 방언을 예언과 함께 성령의 은사로 인정했다. 그러나 예언을 할 때나 방언을 할 때나 질서있게, 서로에게 덕이 될 때만 절제해서 하고,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을 모두 통제 해야 했는데 방언이 더욱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전 14:26-33)<sup>19</sup>. 이러한 바울의 편견을 고린도전서를 수사학으로 해석한 에릭손같은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은 당대에 발달된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었다. 질서를 선호하고 논리정연한 수사학에 훈련된 그가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고, 논리에 맞는 언어이고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라는 점에서, 그는 예언이 남성적이라면, 방언은 여성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이러한 편견이 바울로 하여금 더욱 방언하는 여신도들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sup>20</sup>

<sup>17</sup>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6

<sup>18</sup> Douglas, 36, 51, 53, 54.

<sup>19</sup> Elizabeth Schussler Fiorenza, *In Memory of Her*(New York: Crossroad, 1983), 226-233.

<sup>20</sup> Anders Eriksson, “Women Tongue Speakers, Be Silent”: A Reconstruction through Paul’s Rhetoric, *Biblical Interpretation*, 1998, 6, 1, 80-104.

그러나 Fiorenza 같은 학자는 이 구절을 그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 안에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당시의 사회는 여자들의 공적인 사회참여를 철저히 금하고 있었다. 공중예배에서 여자가 떠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열광적으로 방언하는 여자들로 인해 기독교회 공동체가 공중 질서와 품위를 상실하고 떠드는 동방 열광숭배자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을 예방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교회가 시작하여, 그 정체성이나 정착해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기독교공동체가 종교적 광신자들로 오해받지 않기를 원했고, 바울이 어려운 말을 하게된 동기는 공중예배에서 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으로 부터 기독교 공동체를 지키려는 그의 기본 관심사였을 것이라는 해석이다.<sup>21</sup> 이러한 구절은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논쟁은 바울이 살던 시대의 문화와 기독교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한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33-35의 규칙은 예배공동체 안에서 아내는 다른 여자의 남편에게 물어보거나, 자신의 남편이 성경을 해석하고 예언하는 예배 중에 범한 오류를 지적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행동들은 당시의 모든 전통적인 풍습이나 법을 어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예배 중에 그들은 조용히 자제하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한다.<sup>22</sup>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바울의 말로 볼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허락한 고린도전서 11:2-16 절과의 모순이다. 즉 바울은 여자들에게 기도하고 예언하도록 격려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여자의 침묵에 대한 명령은 몇 가지의 특별한 권리남용에 대한 금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즉 바울이 모든 여성들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교회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4</sup> 고전 14:33-36 본문의 명령이 모든 시대,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특정한 시대에 예배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어느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여성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sup>25</sup> 그러나 한인교회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말을 모든 여성에게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을 취해 교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평등하게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고 보겠다.

**쟁점 2. 고전 11: 3-11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습시다.

**첫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입장**

<sup>21</sup> 위의 책, 232.

<sup>22</sup> Elizabeth Schussler Fiorenza, *In Memory of Her*(New York: Crossroad, 1983), 230, 232-233.

<sup>23</sup> 이우정, 146-147.

<sup>24</sup> Thurston, 32.

<sup>25</sup> Fiorenza, 231.



위의 본문중에서 오직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만을 골라내어 여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남자에게 종속된다고 절대로 남자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사도바울 자신의 생각이라고 해석하여 여자들이 장로나 목사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일을 반대하며 이는 성경말씀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 둘째, 후대의 삽입으로 이해하는 입장

바울의 여러 서한들이 바울 자신의 것과 다른 이들의 글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진정한 바울의 글에는 남자의 우월성과 여성의 종속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 11:2-16 절과 고전 14: 34-35 본문은 교회공동체에서 여성들의 지나친 행동을 걱정하는 후대 기독교인들의 삽입이라고 보는 입장이다.<sup>26</sup> Crossan 도 후대의 바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삽입해 넣은 본문들이 여성들이 결혼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도직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삽입된 글이 의도적으로 바울의 평등성을 잠재워 버렸다고 삽입설을 주장하는 입장이다.<sup>27</sup>

### 셋째, 바울의 말로 보고 본문의 배경 (context)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입장

칼빈은 고전 11 장에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 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갈 3:28 과 모순됨을 지적한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별과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충고이지 신의 법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질서를 유지함에 대해서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품위있고 질서있게 모든 일을 행하도록 건전한 충고를 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남녀 속에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죄 로 인해 많이 상실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었다”고 피력했다.<sup>28</sup>

그 당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어떤 여자들이 보석을 즐비하게 달고 머리를 풀어헤쳐, 보기에 문란해 보이는 예배행실은 흔히 있는 습관이었고 예배의 효과를 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기도 했다. 고린도교회 여자들이 이를 계승해서 마치 그렇게 해야 외부사람들이 보기에 여자들도 동등하게 성령을 받은 증거라 생각해서 그 습관대로 예배에 임한 것이, 바울이 보기에 경건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를 시정하려고 여자는 단정히 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선포하는일이 성령을 받는 증거이지, 그렇게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행동하는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머리를 풀어헤치는 일은 유대기독교 배경에서는 불결과 단정치 못함을 의미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3: 45 에서 나병환자의 불결함을 말했을 때 머리를 풀라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을 이해하면 고전 11:2-16 에서 바울은 예배에서 여자들이 예언하고 예배를 인도함에 있어서 미친 것같이 보이는 행실을 외부 사람들이

<sup>26</sup> Thurston, 43

<sup>27</sup> John Dominic Crossan & Jonathan L. Reed, *In Search of Paul* (New York: HarperCollins, 2004), 75.

<sup>28</sup> 위의 책, 22, 34, 35, 36, 39.

보기에 품위있고 질서있는 예배행위로 보이도록 가르쳐서 오히려 주 안에서 여성의 권위와 평등성을 인식케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sup>29</sup>

즉 바울이 예배에서의 여성들의 몸가짐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풍습을 지켜 존경받을 것을 요청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sup>30</sup>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여자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초월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여자는 예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임을 말한다. 문제는 그들이 말할 때의 몸가짐이다. 둘째,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해 여자와 남자 양성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곳은 곧 “주 안에서” 라고 하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어느 한 성도 상대방에게 흡수되거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sup>31</sup>

위에서 고전 14:33-35 과 고전 11: 3-5 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입장과 후대 삽입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당시의 사회, 문화 풍습의 배경에 비추어 해석하는 입장을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많은 한인교회는 사도바울의 본문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해 여성과 남성은 교회 리더십을 행함에 있어 평등하지 않다고 믿어 여성안수와 여성의 리더십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한인교회는 바울의 원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문들이 더이상 여성안수와 리더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음 장에서 남녀동등성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도바울의 신학과 입장을 접하게 될 것이다.

## 2. 사도 바울의 남녀 평등 관계에 대한 원칙 (Principle)

위에서 우리는 한인교회가 여성안수를 거부하는 원칙으로 사용하는 바울사도의 말씀으로 알려진 본문들을 소개하고 반론과 재해석을 시도했다. 사도바울의 남, 녀 관계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 사도바울의 남녀 관계에 대한 원칙이 있다. 그 대표적인 네 본문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남성, 여성의 평등한 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원칙을 알아보기로 한다.

원칙 1.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갈 2:16).

원칙 2.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갈 3:28).

원칙 3.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고후 5:17).

원칙 4. 고전 11:11-12: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고후 5:17).

원칙 1.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갈 2:16).

<sup>29</sup> Fiorenza, 227, 232-233.

<sup>30</sup> 이우정, 137-138.

<sup>31</sup> 위의 책 142-144; Crossan & Reed, 113-114.

Columbia 신학의 Cousar 교수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갈 2:16의 바울의 원래 의도는 [무시되고 제외되고 개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교회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변호함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롭다 여김을 받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인 동시에 의로운 삶을 살라는 요구라고 주장한다.<sup>32</sup>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신학의 핵심으로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된 교회공동체는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모임에서는 성(gender)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누구라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하에 다음의 본문들을 살펴 본다.

**원칙 2.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6-28).**

갈 3:28은 당시에 쓰이던 세례의식문의 일부로서 세례자가 선포했고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한다. 세례는 종족의 차별,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계급간의 차별과 성차별을 모두 없애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던 옛질서에서 나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세례받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이 선언은 유엔 인권헌장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sup>33</sup>

날이 갈수록 많은 주석가들이 갈라디아서 3:28은 바울이전의 세례고백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인용한 것으로, 바울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소멸되고 만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세례 공식구를 암송함으로써 새로 가입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그리스 - 로마 문화권의 사회 - 종교적 신념들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를 표명했었다고 한다.<sup>34</sup>

진정한 역사적인 바울은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유대인으로 들어왔거나 혹은 기독교인 이방인으로 들어왔거나, 기독교인 남자로 혹은 기독교인 여자로 들어왔거나 기독교인 자유인으로 혹은 기독교인 노예로 들어왔거나 상관없이 남녀 모두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평등하다고 믿었다.<sup>35</sup>

그러므로 갈 3:28은 교회 안에서 남, 녀의 위치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신학적 원칙이며 이 성명은 기독교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갈 3:24)으로 인종적 혈통(유대인/ 헬라인), 경제적 신분(종/ 자유인), 성별(남/녀)을 근거로 하는 가치판단과 지배는 더이상 보존될 수가 없고

<sup>32</sup> Charles B. Cousar. *Interpretation. Biblical Commentary on Galati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56-57.

<sup>33</sup>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300.

<sup>34</sup> 이우정, 229.

<sup>35</sup> Crossan & Reed. *In Search of Paul* Preface, xiii.

폐지되어야함을 주장한다.<sup>36</sup> 수세기를 거쳐 갈 3:28의 가르침은 기독교공동체 안에서 여성평등의 “대헌장”의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sup>37</sup>

**원칙 3.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바울의 신학적 표현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부터 인간을 외면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을 거절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무할례(유대인과 이방인)가 효력을 상실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교회직제의 구별이란 더이상 성서적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제사장적, 선지자적 직능을 수행할 평등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녀의 성차별이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8</sup>

**원칙 4.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습니다(고전 11:11-12).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고전 12:13).**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모두가 하나이니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고 억압해야 할 이유도 권리도 없음을 말하고 주님 사역의 파트너로서 평등한 남녀의 자격을 천명한다. 바울신학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도직에서 평등하다. 진실로 바울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우월성, 열등성, 부동등성도 반대한다.<sup>39</sup> 위의 본문들은 남녀 평등성에 대한 바울의 철저한 원칙이며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읽어도 그 뜻이 너무 분명하여 설명을 불허한다.

결론으로 위의 사도바울의 네 원칙은 참으로 혁명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사도바울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오늘날 한인 교회 안에서 남녀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바울의 남녀 평등관계에 대한 신념을 너무 몰랐거나 알았어도 무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여성을 장로나 목사로 안수하기를 거부하여 교회의 최고결의 기구인 당회에 여성들이 제외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평등원칙을 완전히 외면하는 행위라고 보겠다.

모든 한인교회는 바울의 4 원칙 위에 서서 남녀 모두를 당회와 교회 리더십에 평등하게 환영하는 혁명적인 역사를 체험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불평등했던 남녀관계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평등관계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sup>36</sup> Thurston, 37.

<sup>37</sup> 이우정, 179, 224.

<sup>38</sup> 김지철. “여성지도력을 위한 성서해석학적 고찰,” <여성안수에 관한 자료 모음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여교역자 연합회, 1992), 110.

<sup>39</sup> Crossan & Reed. *In Search of Paul*, 110.

### 3.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

초기 기독교 선교사역에 있어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은 이미 5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초대 기독교회의 대부분은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는데, 당시 가정교회를 이끈 지도자들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본 장에서는 초대 기독교 사역에서 바울과 함께 활약했던 비비, 브리스가, 루디아, 유니아, 도르가 등 대표적인 여성동역자들을 소개한다. 사도바울이 그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위에서 열거한 그의 남녀평등에 대한 원칙을 몸소 실천했다고 본다.

#### 비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비비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롬 16:1-2, 새표준번역).

롬 16:1 에서 바울은 비비를 “디아코노스 (diakonos)” 로 소개한다. “디아코노스”란 말의 뜻은 섬긴다/중 (service)이라는 뜻으로서 신약의 세계 밖에서는 ‘식탁에서 시중들다, 돌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유대주의에서는 디아코노스의 의미가 ‘식탁에서 시중들다’에서 발전하여 성직자의 직무까지를 의미했다고 한다. 신약에서 예수께서는 디아코노스 (섬김)란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시켜 회랍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유대의 개념을 높이 발전시켰다. 즉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섬기다”는 말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했다. 믿는 이들이 자신을 바치는 모범적인 섬김처럼 그리고 마 25:42 에서 말하듯이 남을 위한 섬김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했다. 디아코노스는 복음의 종이라는 뜻으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하나님의 종이라 했다(고후 11: 23).<sup>40</sup>

바울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자신이나 아볼로에게(고전 3:5; 고후 3:6), 두기고에게 (엡 6:21; 골 4:7), 디모데에게(딤후 4:6),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롬 15:8) 사용한다. 바울이 이런 의미있는 단어를 비비를 가리키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비비가 겐그레아 교회의 복음 사역을 맡은 공식적인 중요한 사역자였음에 틀림없다.<sup>41</sup> 그러나 Diaconos 라는 단어는 남자에게 적용될 때는 대부분의 영어성경에는 종/목사(servant/minister)로, 한글성경에는 일꾼으로(엡 3:7; 6:21; 골 1:7, 23, 25; 4:7; 살전 3:2; 딤후 4:6) 번역한데 비해, 비비에 대해서는 영어성경에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deacon)로,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일꾼, 여교우 (롬 16:1-2)라고 번역했다.

<sup>40</sup> Geoffrey W. Bromiley,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 MI: Eerdmann Pub. Co. 1985), 153. 회랍어- 영어성경 (The RSV Interlinear Greek-English New Testament -Marshall)은 디아코노스를 목사(minister)라고 번역했다.

<sup>41</sup> 박수암. “여성안수에 대한 신약 성서의 견해” <여성안수에 관한 자료모음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전국여교역자 연합회,1992),94.

뵈뵈에게 주어진 두번째 칭호 프로스타티스(prostatis)(롬 16:2)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benefactor/helper/succorer(후원자/ 보호자/기증자/ 돕는자/구조자)로,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보호자, 돕는자, 후원자로 해석했는데 당시의 문헌에서는 주도적 관리, 의장, 감독, 지휘자 등을 의미했다고 한다. 따라서 뵈뵈는 겐그리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바울에게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해석한다. 프로스타티스의 또 다른 의미는 사회자(presiding officer)이고, 디모테전서 5:17 에서는 같은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여져 잘 “다스리는(preside)” 장로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뵈뵈는 장로와 같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 단어가 로마서 12:7-8 과 데살로니가전서 5:12 에서는 “통치하는 (ruling)”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글에서는 프로스타티스의 남성형이 성찬식을 베푸는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다.<sup>42</sup>

그러나 가부장적 흔적을 담은 성경의 번역에서 ‘뵈뵈’를 ‘최고의 책임자나 총독’이라는 원어의 번역보다는 ‘여성 조력자,’ 또는 ‘교회의 봉사녀’로 번역하고, 그녀의 ‘사도 [목사]’ 라는 칭호를 ‘여집사’로 바꾸어 번역했다는 데에 여러 학자들은 동의한다.<sup>43</sup>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언어해석을 통해 뵈뵈는 분명히 남자와 평등하게 장로나 목사역할을 수행했고 바울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 뿐만이 아니라, 이방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롬 16:3-5, 새표준번역; 행 18:2, 18, 26; 고전 16:19; 딤후 4:19 도 참고).

바울은 브리스가(아내)와 아굴라 (남편) 부부를 골라내서 특별히 칭찬한다. 신약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은 6 회 나오며 이중 4 회가 브리스가의 이름을 앞세운다. 행 18:2 에 보면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AD 49-50)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글라우디스 칙령에 의하여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것이다(행 18:2).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했으며(행 18:3), 함께 전도여행을 한 것 같다(행 18:18-19). 그 다음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옮겨가서 거기에다 가정교회를 세웠다(고전 16:19). 롬 16:3 에서 바울은 보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초대 교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정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기에 때문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해석한다.<sup>44</sup> 특히 그들의 집은 고린도에서 (고전 16:19), 에베소에서(행 18:18), 그리고 로마에서(롬 16:5) 선교 근거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브리스가는 분명히 초대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음에 틀림없다.

<sup>42</sup> Richard and Catherine Kroeger. 신혜수 역.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장로> (Louisville, KY: Presbyterian Church (U.S.A.), 1980), 16.

<sup>43</sup> 나현숙 공저. <주여 울소이다마는> (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3.

<sup>44</sup> 박수암, 93; 김지철, 112-113.

이 두 사람이 아볼로를 가르친 이야기는 신약시대 교역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 철폐되고 남녀가 평등하게 리더십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행 18: 26). 아볼로를 가르침에 있어 브리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녀가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브리스는 최근에야 비로소 성서신학자 Adolf Von Harnack 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는데 Harnack 은 브리스를 히브리서의 저자로까지 보려고 했다고 한다. 롬 16:3 에서 바울은 브리스와 아굴라의 위험을 무릅쓴 도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고 말한다. 브리스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로마에서 시작한 것 같다. 가정교회에나 예배집회에서 여자들은 공적으로 말하거나 기도하거나 예언을 했고(고전 11:5) 회중들을 위한 여자들의 활동이 남자들과 똑같이 돋보이며 남녀사이가 평등했던 것이 분명하다.<sup>45</sup> 위에서 설명한 대로 브리스가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다면 남성들과 평등하게 장로나 목사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루디아 (행 16:11-15, 40)

바울은 주후 50 년경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도시 밖에서 기도모임의 여성들에게 설교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빌립보교회는 처음에 루디아의 집에 모였다(행 16:15, 40). 그는 첫번째 유럽교회를 여성 개종자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과 그의 기도그룹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웠다. 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만족해한 교회였다고 전한다. 빌립보에서는 여성들이 언제나 종교생활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교회의 뿌리를 내렸다.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세웠다고 하나,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도모임이 빌립보교회 설립의 근원이었다고 보겠다.

#### 유니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롬 16:7, 새표준번역).

유니아라는 이름은 고대에 흔한 여자 이름이었다. 역사 기록에만에도 이 이름은 250 번 등장한다. 기독교의 처음 1200 년간은 주석학자들이 브리스와 아굴라의 경우처럼 유니아를 안드로니쿠스의 아내(롬 16:7)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번역가들에 의해 그녀의 이름이 남자 이름인 유니안으로 쓰여지면서 유니아(Junia(nus))는 남성으로 인정되었다. 사도들 사이에서 평판이 높았던 유니아의 이름을 남성으로 바꾼 것은, 전 장에서 언급되었듯이 가부장제도에 길들여진 교회의 남자들이 여자를 사도로 인정하기 싫어서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sup>46</sup>

<sup>45</sup> 이우정, 246-248.

<sup>46</sup> Crossan & Reed, *In Search of Paul*, 115-116.

Kroeger 도 유니아가 여성사도였다고 생각한다. 4 세기 동방정교회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신부 존 크리소스툼은 “사도가 된다고 하는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오, 이 여자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녀는 사도로 명명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해 유니아가 사도였음을 시사했다.<sup>47</sup> 바울도 유니아를 뛰어난 여사도라 부른다(롬 16:7). 여기서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했으나 영어 성경에는 훌륭한 사도(outstanding apostle)라고 했다.<sup>48</sup> 그러므로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마찬가지로 부부선교사였던 것 같다. 이 둘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고, 유니아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도였다.

### 도르가 (다비다)

그런데 읍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행 9:36).

도르가 (다비다)는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여성이다. 어떤 한글성경에는 “여제자”로, 또 다른 한글 성경에는 “여신도” 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NRSV) 제자 (disciple)라고 번역하였다. 원어에도 여제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르가는 초대교회의 여성제자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제자”와 “여신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여제자”를 “여신도”라 함은 심각한 오역이다.

### 바울의 문안인사 (롬 16) 에 나오는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바울은 여러 여성들과 매우 가깝게 함께 사역했고 훗날 그곳을 떠난 후 그들에게 보내는 각별한 문안 인사에서도 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과 그의 여성들과의 동역관계를 엿볼 수 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여성에 대한 현저한 긍정적인 자료 중 하나는 로마서 16 장에 기록된 바울의 문안이다. 여자, 남자의 순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이름이 나오는 점은 그 당시 여성들의 역할이 거기 등장하는 남자들보다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책은 목사/집사/사도 등이었는데 롬 16 장에 이런 이름들이 여성에게 주어졌다.

바울의 인사에 나오는 27 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10 명은 여성이다: 뵈뵈,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여러 자매님들. 그리고 나머지 17 명은 남성이다. 스스럼없이 그 중에서 다섯 여성(마리아,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과 여섯 남성을 골라내서 특별히 칭찬한다. 롬 16 장에서 바울은 여성들이 감당했던 직무의 역할을 집사(deacon), 후원자(protectress-patron), 동역자(fellow worker), 수고를 많이 한(hard worker) 일꾼, 사도(apostle)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들이 한 일을 성(gender)을 중심으로 표현하지 않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각 교회에서 맡았던

<sup>47</sup> Kroegers, 17.

<sup>48</sup> 안상남, 267.



여러 가지 지도력 역할 (leadership role)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Crossan 은 강조한다.<sup>49</sup>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라는 책에서 E. Eral Ellis 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한다. 바울이 “동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순회사역을 함께 한 동료 (synergos)를 의미하고 “형제 자매”를 사용할 때 전반적으로 교회사역에서의 동료를 의미하며, 디아코노스(목사)를 사용할 때 순회설교와 가르침을 주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즉 특수한 계층에서 활약하는 동료를 의미하고, 사도(apapostolos)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대개는 12 사도를 의미하지만 바울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를 의미했다. 바울은 롬 16 장에서 자신의 동역자를 의미하는 위의 4 가지 용어 중 3 가지를 여성에게 적용했고 4 번째 것은 여성을 포함해서 사용했다. 롬 16:6 의 마리아와 16: 12 의 드루배나와 드루보사가 그러한 것처럼 브리스가(16:3)는 동역자(fellow-worker)였다. 뫼뵈(16:1)는 목사였고, 유니아는 사도였으며 모두 교회사역에서 형제였다고 Thurston 은 해석한다.<sup>50</sup>

결론으로, 이렇게 바울은 여러 여성들을 존경하면서 남자들과 평등한 리더로 함께 일한 역사를 쉽게 볼 수 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는 말을 했음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도바울의 “여자는 잠잠하라” 고 말한 것이 이미 토론되었듯이 어떤 특수상황이었거나 아니면 후대의 삽입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본다. 바울은 여성들의 선교활동이 자신의 활동과 평등한 것이었음을 행동으로 말로 증거했다고 본다. 그는 여성들이 사도직(롬 16:7; 행 9:36)과 목사/집사직 (딤후전 3:11)을 담당하도록 했다. 많은 여성들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롬 16:1; 빌 4:2)라고 소개하고 교회는 남녀가 평등하게 상호의존하고 있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암시했다.

고대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볼 때 바울의 여성들과의 동역자적인 사역의 역사와 남녀평등성에 대한 그의 신학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개혁임에 틀림없다. 역사를 훑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 리더들이 초대교회에서 평등하게 남성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 활약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녀의 평등관계에 대한 그의 근본원칙은 오늘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을 일깨워주니 우리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시의 이방인에 대한 풍습을 포함해서 유대사람들의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바울의 개혁사상과 여성에 대한 바울신학과 원칙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리고 바울 자신의 여성들과의 평등한 동역관계를 볼 때, 바울은 남존여비나 남성 우월주의 사상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평등한 리더로서의 자격을 신학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이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녀 평등관계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개혁적인 신학과 실천이 어디에서 왔을까?

<sup>49</sup> Crossan & Reed, 115.

<sup>50</sup> Thurston, 53.

## 예수 그리스도와 여성

위에 열거한대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신학자들과 현재에도 여성들을 평등하게 교회의 리더로 대우하는 교회들은 남녀 평등관계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주님을 따른 군중 속에 여성들이 있었다.
2. 주님께는 여사도와 여성제자들이 있었다.
  - a. 막달라 마리아
  - b. 사마리아 여인
  - c. 베다니의 마르다
  - d. 예수께 기름부은 여인(막 14:3-9; 마 26:6-13; 눅 7: 36-50; 요 12:1-8)
3. 여성들도 최후 만찬에 주님과 함께 참여했었을 것이다.
4. 여성들은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운명의 목격자였다.
5. 여성들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

### 1. 주님의 군중 속에 여성들도 있었다.

예수님 당시 정결제도를 둘러싼 사회관습은 "세상을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등 사회적 범주로 갈라놓고 차별했다."<sup>51</sup>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법은 여성의 자율적인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했다. 딸이나 아내는 아버지나 남편이 소유로 간주되었다. 시민으로서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또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권리가 없고 주인에게 순종과 섬김의 멍에로 결속된 존재라는 점에서 노예의 신분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었다.<sup>52</sup> 남자가 공적인 자리에 여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수치였다. 법정에서 여자의 말은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자에게 토라(율법책)를 만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태워 버리는 것이 나왔다. 여자는 대부분의 성전 일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여자는 회당에서 모임을 갖기 위한 필요한 정족수에서 제외되었다. 1 세기의 유대 남성들은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서 자신들이 이방인도, 노예도, 여성도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sup>53</sup>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더군다나 외간 남자들과 한 자리에 앉고 함께 다니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군중 속에는 여성들이 많이 끼어 있었고 함께 전도여행도 했었다.

<sup>51</sup> Marcus J. Borg, *Meeting Jesus Again for the First Time*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5), 53, 55-56.

<sup>52</sup> Rosemary Radford Ruether, "The Western Religious Tradi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Home," in *Christianity, Patriarchy, and Abuse* edited by Carson Brown & Carole R. Bohn (New York: Pilgrim Press, 1989), 31.

<sup>53</sup> Pedrito U. Maynard-Reid, *Complete Evangelism* (Scottsdale: Herald Press, 1997), 75.

왜냐하면 이렇게 차별이 심하고 약자를 소외하는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세상, 남자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예배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세상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 비록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여자들, 아이들, 세리들, 죄인들, 죄수들, 장애인들과 병자들,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환영했기 때문이었다.<sup>54</sup> 이런 사람들과 예수께서 결속하시고 이 땅의 모든 버림받고 절망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the least) 였고(마 25:40), 예수님 자신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대표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대변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sup>55</sup> 그러므로 “예수의 공생애 삶의 시작에서부터 항상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

## 2. 주님의 사도와 제자로서의 여성들이 있었다.

여성의 평등성을 부인하고 여성을 교회의 리더십에서 제외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이므로, 그리고 예수가 남자만 12 제자로 뽑았으므로 남자만 제자와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남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예수가 남자라서 남자만 사랑하고 남자만 구원했는가? 우리는 예수의 성(gender)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를 구세주로 믿는가? 막달라 마리아 노숙자 여성교회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친구, 구세주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의 성과 관계없이 그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일 뿐 아니라 유대인 남자이다. 그러면 남자 그리고 유대인 남자만이 제자가 된단 말인가? 물론 그 시대에는 유대인 남자만이 랍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풍습에서 여성들을 12 제자 그룹에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해야 하는가? 오늘날 어떻게 여성들이 대통령, 국무총리가 되는가? 교회 바깥 사람들이 여성의 평등성을 더 잘 실천한단 말인가? 사회보다 교회가 여성들을 더 차별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여성들을 초대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 예수의 메시지와 운동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개방성은 여성들이 남자들과 평등하게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네 복음서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여성들을 말하며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용감한 제자들이었다고 지적한다(막 15:4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에서 주님의 inner circle 에는 12 제자 외에도 더 있었음이 분명하다. 사실은 마가복음에 “그의 제자”(his disciples-toisidiois mathetais)란 용어는 43 번 사용 되었고 “열둘(the twelve)”

<sup>54</sup> Blount, *Run the Risk*, 113-114.

<sup>55</sup> 김진숙. <노숙의 근본원인과 교회의 반응> (전국 한인교회협의회 출판, 2008), 53.

이란 말은 10 번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막 4:10 과 15:40-41 은 우리가 주님께 모여든 군중 속에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disciples)”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성들이 끼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Mary Ann Tobert 은 제자도는 따르는 것, 섬기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는 여성들이 최고의 모범이라고 했다. 마가의 공동체에는 강력한 여성제자들과 여성사도들이 있었음이 틀림 없다.<sup>56</sup>

### 사도에 대해

사도바울은 사도직을 열두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않았다. 바울에 의하면 부활의 목격자이거나 부활한 주에 의해서 선교의 일을 위임 받은 자라는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사도였다. 그러나 사도직을 위해서 누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소 다르다. 누가는 예수의 선교활동 중에 그를 따라다녔고 부활을 증언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롯]유다 를 대신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행 1:21). 네복음서 모두에 의하면 여성들은 바울과 누가의 사도직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켰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서 전승에 따르면 여성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선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건들의 최초의 사도적 목격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삶, 선교, 고난, 죽음, 매장 모두를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라고 파송받았으니 사도 중의 사도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한다.<sup>57</sup>

칼빈은 여성들이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급히 가고 있을 때 겹에 질려 아무것도 못한 남자들의 무능을 나무라는 의미에서 사도들의 선생을 만들고, 흩어진 교회를 재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여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었고 잠시 남자들에게서 뺀 사도직을 여성들에게 위임했다고 해석한다.<sup>58</sup> 이 말은 여성 리더십에 대한 칼빈의 놀라운 언급이다.

### 제자도에 대해

“십자가 밑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눅 23:49)에서 "**따르다**" 는 단어는 눅 5:11 에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에서 사용된 제자도(discipleship)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이다. 눅 23:49 과 55 절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그를 따랐다” 는 눅 8:1-3 을 상기시킨다.

구원을 받는데 대한 이 여성들의 반응은 제자도의 표준반응인 예수를 따르는 것과 자신들의 재력을 털어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눅 8:3). 여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열두 남자 제자들이 배우는 것을 함께 배우면서 예수님을 “섬겼다”(serve). 이는 제자도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12 제자에 가까운

<sup>56</sup>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77.

<sup>57</sup> 이우정, 230-231; Elisabeth Moltmann-Wendel, *The Women Around Jesus*, Trans. John Bowden (New York: Crossroads Pub.1982), 111.

<sup>58</sup> Douglas, 58.

지위(status)를 주고 있고 예수를 섬기는 것으로 제시되는 누가의 기독교론은 사실 여성들이 행한 섬김(service)과 리더십에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어떤 복음(예: 마가)에서는 여성제자들이 오히려 남자 제자들보다 낮게 소개되었다. 남자제자들이 주님의 인간됨, 그의 사역(mission), 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막 6:35; 6:49, 52; 8:16-21; 9:32-36; 10:35-45; 13:1). 주님에게 도전했고(막 4:38; 5:31; 8:4; 14:4), 그의 명령에 불복종 했다(막 7:36). 막 8:27-9:1 에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고백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는 주님의 책망(막 8:32)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주님의 남자 제자 중 하나인 가롯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팔아 배신했고(막 14:10-22), 주님이 잡히실 때 남자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막 14:50-52), 주님께서 의회 앞에 서서 심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뜰 안에서 그를 부인하기에 바빴다(막 14:53-72). 그러나 여성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아니했고 그 무서운 죽음의 골고다 언덕 주위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

박수암 교수도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제자의 반열에 넣으셨다고 주장한다. 눅 8:1-3(막 15:40-41; 마 27:51-56)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온 일군의 여자들이 예수와 그의 12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의 소유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 이것은 예수시대에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 여자들이 12 제자와 같은 반열에서 제자노릇을 했음을 보여주며 예수께서는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다. 그들은 12 제자들처럼 출가했으며 결식하며 예수와 함께 했으며 그가 하신 일을 보며 말씀을 들었다. 예수는 여자들에게 제자직을 허용함으로써 관습을 의도적으로 탈바꿈시킨다. 예수께서 여성안수와 여성 리더십을 평등하게 취급하시는 태도는 그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던 세리를 12 사도권에 넣었다는 사실에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마 10:3).<sup>59</sup>

세리로 말하자면 로마정부가 세금을 최대한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권한을 주고 고용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 그 이상의 것을 거둬들여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취했다. 그래서 세리직업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었다. 유대사회는 그들을 로마의 앞잡이라며 경멸하고 버렸다. 그들은 이방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시에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일반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가지는 공적인 권리를 박탈당했고 천시당하던 일반 여성들보다도 낮은 신분에 있었으며 이방인(마 18:17), 강도, 죄인(막 2:15), 창녀들과(마 21:31-32) 같은 반열에 놓여 도덕성을 파괴하는 극악한 무리들로 분류되었으며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었다. 심지어 사생아처럼 혈통에 큰 결함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구할 수 있었던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그들의 돈은 불결하다하여 구제금으로도 받지않았다.<sup>60</sup> 이런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마 9:9-13; 막 2:14-17; 눅 5:27-32) 주님께서 여성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대우하시고 리더로 삼으신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sup>59</sup> 박수암, 84 - 85

<sup>60</sup> 김진숙, 48, 61; 박수암, 85.

사실이다. 이제 여기에 여사도, 여제자로서 리더십 역할을 잘 감당한 여성 네명을 대표로 소개한다.

#### a.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복음서에 12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8 장 2 절에 나오는 예수를 도와 드린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의 마지막 수난, 장례, 부활과 관련된 기사에 나온다. 그녀의 고향이 게네사렛 호숫가 막달라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 불렸다. 앓던 병에서 회복된 마리아는 그 도시를 떠나 예수를 따랐고 자기의 전 존재로 예수를 섬겼다(눅 8:3).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과 갈릴리에서 온 여성들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그녀가 분명히 리더십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묵시적 복음서의 문학에서는 베드로와 동등한 리더십 지위에 올라 있다.<sup>61</sup> 그녀는 예수에게 속한 집단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녔고 예루살렘 여행에도 따라갔다(막 15:40-41). 여자로서 유랑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은 집과 가정과 재산을 버리고 떠났음을 뜻한다. 그 당시 문화에서 여성들이 집을 떠나 남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일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었다. 복음서는 이 여자들이 열두 제자들을 재정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기록한다(눅 9:3; 10:14). 갈릴리에서 예수운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부터 여자들도 이 운동에 참여했다(행 16:14-15; 17:4-12). 막달라 마리아는 4 세기까지 동방교회에서 교부들 사이에 ‘사도 중의 사도’로 인정받았고 중세기 성전 벽화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제를 임명하는 여자’ 리더로 그려졌다.<sup>62</sup>

막 15:40-41 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와 살로메가 주님을 "따랐고 (follow)"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섬기던 자“로 기록했는데, 이미 언급한 대로 “따르다”는 복음서에서 제자도(discipleship)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르다”의 희랍어 ekolouthoun 은 안드레와 시몬(막 1:18)의 [예수를 따른] 반응과 레위의 반응(막 2:14)을 말할 때 사용한 같은 단어이다. 그리고 “섬기다 (provided)”라는 말의 뜻은 “성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하다(minister, serve-diekonoun)”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섬기다”란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ministry)의 중심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에게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 여자들의 리더십 역할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sup>63</sup>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처형장과 무덤까지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부활한 주를 만나 증언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참된 제자이며 리더이다.<sup>64</sup>

<sup>61</sup> 이우정, 231.

<sup>62</sup> 나현숙 공저, 132.

<sup>63</sup>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69.

<sup>64</sup> 나현숙 공저, 139.

마리아 복음<sup>65</sup>에 따르면 그는 심지가 굳고 똑똑한 예수의 사도로 나온다. 정신병으로 고통했던 마리아는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고 그 때부터 예수를 따라 그의 고난, 죽음, 매장, 부활을 다 지켜보고 부활을 증언한 여사도로 소개되었다.<sup>66</sup>

위에서 언급한 대로 초대교회에서 12 제자 중 가롯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도를 선정하는 기준에 따르면(행 1:21)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주님의 제자요 사도가 될 자격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아픔과 죽음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지켜보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다. 빈무덤을 발견한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과송을 받아 제자들에게 전달한다(요 20:11-18).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를 처음 만난 사람, 부활을 알리라는 소명을 처음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한 처음 사람이다.

수님 시대에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고 남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성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하신다. 요한복음 20 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부활하신 주를 보았고, 예수 자신으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았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적어도 요한의 눈으로서는 사도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다면 부활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 직접 보냄을 받고(요 20:1-18) 세상에 부활을 소식을 전한 막달라마리아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일에 공헌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잃고 슬퍼하며 울고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고 장상 교수도 주장한다.<sup>67</sup>

#### **b.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사이 지방을 다니시다가 대낮에 사마리아에 들러 야곱과 관련있는 우물가에 머무신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길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해 그 여인을 놀라게 한다. 유대 남자는 공공장소에서 외간 여자와 말을 걸어서는 안 되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피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깊은 적대관계였다. 앗시리아가 유대 북쪽의 10 지파를 점령한 후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마리아에 앗시리아 사람들을 옮겨다가 심으니 거기에 남은 유대인들과 혼인하여 혼혈민족이 되었다. 정결법을 존중하던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섞인 사마리아 인들을 불결하다고 죄인같이 취급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차별했다. 이 선입견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sup>65</sup> 신약외경에 포함된 복음서로서 “The Gospel According to Mary Magdalene”가 있다.

<sup>66</sup> 안상남, 248-249.

<sup>67</sup> 위의책, 237.

먹지도, 예배드리지도, 결혼하지도, 심지어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 있고자 하지도 않았다.<sup>68</sup>

예수는 이런 사마리아인 특히 여성을 상대함로서 문화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금기와 종교적인 금지를 모두 깨고 생수에 대해 토론을 시작한다.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말 때문에 품행이 나쁜 여인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남편, 즉 바알(Baal)이라는 용어는 섬기는 신을 뜻할 수도 있다고 한다.<sup>69</sup> 사실 이 사마리아 여성은 제 4 복음서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견문이 넓은 사람 중의 하나라고 Thurston은 칭찬한다. 그녀는 의식(ritual)의 정결 규례(요 4:9),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요 4:12), 타당한 신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필요성(요 4:19-20),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요 4:25)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sup>70</sup>

예수께서 영생의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를 예언자로 인식한 후 첫 질문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한 사람의 신학적 질문이다. 예수는 참예배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하늘나라와 예배와 메시아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지식도 겸비한 여인이었던 것 같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알려준다. 아직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채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나누려고 동네로 달려 갔다. 그는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요 4:39에 그녀의 증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다.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물과 배와 집을 뒤에 버려둔 것과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그녀가 행한 일은 사도직의 모범행위이다(요 4:5-42). 그래서 실상 그녀는 [사마리아의] 첫째 사도 /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주님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 여성, 그것도 흠이 있다고 알려진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여 신학의 토론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마리아의 선교사 역할을 하도록 하셨으니 여기서도 남녀 동등성에 대한 그의 생각과 삶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 c. 베다니아의 마르다

요 11: 1-44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배경에서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요 11:25-27)라고 고백했을 때 이는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성숙된 신앙고백이라고 Thurston은 주장한다. 마르다의 고백은 공관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맞먹는 그런 고백이다.

<sup>68</sup> Robert W. Funk, *Honest to Jesus* (San Francisco: HarperSan Francisco, 1996), 175.

<sup>69</sup> 안상남, 164.

<sup>70</sup> Funk, 84.



요한복음의 서두부터 예수가 메시아됨을 사마리아 여성에게 나타내시고 끝에 가서도 역시 여성 마르다가 이를 고백한다.<sup>71</sup>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의 특징으로 여겨졌었다.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황은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 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한 마르다도 역시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하면 어불성설이 될까? 마르다는 예수의 어느 제자 못지않게 예수를 이해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을 무시하고 살아왔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만큼 예수를 잘 이해했던 마르다를 새롭게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고백은 신약에서 베드로의 고백만큼 훌륭한 신앙고백임에 틀림없으니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요한은 여성이 많이 늘리운 시대에 마르다 같은 리더십이 강한 여성을 높이 들어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한다. 그 당시 공동체에서 마르다는 남자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를 가졌고 같은 존경을 받은 것이라고 독일 신학자 Wendel-Moltmann 은 주장한다.<sup>72</sup>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눅 10:38-42 에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식사준비와 손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하였던 여인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식사나 부엌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식사준비를 한 것처럼 본문을 읽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40 절에 마르다의 일을 diakonian 이라 했는데 희랍어로 섬기다(serve-diakonian)는 누가복음에서 중간역할, 대변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대표해서 리더십과 선교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함을 의미한다. 사도행전에서 같은 단어 diakonian 은 8 번 사용중에서 6 번은 교회에서의 리더십과 복음선포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Carter 가 지적하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선교는 파트너십의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고 포함시켰을 것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들은 것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각각 다르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둘 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끼어있었다. Mary Rose D'Angelo 도 Carter 와 동의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약에서 일련의 여성 선교자들의 한쌍으로 보고, 이 두 여성은 필경 가정교회를 지도한 리더였을 것이고 둘 다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

Fiorenza 도 마르다의 diakonian 은 그녀의 집에서 모인 가정 교회에서 성직자 지도층을 의미하는 전문용어임에 동의한다. 마르다는 확실히 기독교적 믿음을 가졌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녀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요한복음에서 그녀는 완전한 기독교적 신앙고백을 한 것이라(요 11:27)고 칭찬한다.<sup>73</sup>

d. 예수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 (막 14:3-9; 마 26:6-13; 눅 7: 36-50; 요 12:1-8)

<sup>71</sup> Thurston, 87-88.

<sup>72</sup> Moltmann-Wendel, 25-26.

<sup>73</sup>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110.

막 14:3-9/마 26:6-13 에는 예수께서 무교절이 가까웠을 때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한 여자가, 눅 7: 36-50 에서는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요 12:1-8 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잡수실 때, 마르다는 시중들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이야기는 4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였는가를 여실히 증명한다.

막 14:3-9/마 26:6-13 에 기록된 대로라면 한 여인은 주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주님께 접근한다(막 14:3-9; 마 26:6-13). 주님은 여기서 이미 그 당시 나병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나병환자하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하심으로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적인 taboo (레 13 장과 14 장)를 깨고 있었다. 그녀가 매우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녀는 아마도 저녁식탁에 초대받은 손님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버림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식탁이었음으로 이는 매우 특이한 저녁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또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에는 항상 여성이 끼여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한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였건 이름없는 여인이었건간에 자신이 저축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예수의 생의 마지막 주간에 종교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고, 가롯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던 살벌한 지경에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가고 있었다. 예수는 그가 수난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세번이나 말했다. 첫번째 수난예고(막 8:31-32)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조금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백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이신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두번째 수난예고(막 9:30-31)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고 했다. 세번째 수난예고(막 10:32-34)를 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선생님의 좌우에 앉혀 주십사”고 소원을 말한다.

이렇게 세 번이나 자신의 수난을 예고했을 때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 했던 남자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께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꿈구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예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믿고 선생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하기 위해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김지철 교수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나 그 여인을 칭찬하는 예수의 말씀(막 14:3-9)은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체포 음모와 예수를 3년이나 따르던 제자 가롯유다의 변심과 배신과 대조되며, 이에 반해 여인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선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74</sup>

이 여성은 일년치 월급에 상당한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당시 극동지역에서 머리에 기름부음 받음은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택함을 받음을 의미했다.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시대에 예언자의 근본 역할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기름붓는 행동은 예수가 그리스도(메시아 혹은 기름부은자) 라고 하는 예수의 위치에 대한 그 여성의 고백이었다고 해석한다(막 14:6-7). 막 14:8-9 은 주님의 십자가형을 예시(foreshadow)하고 초대 기독교회 공동체의 여성의 유명도와 리더십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 여인은 예언자의 기름붓는 행동을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임을 이해한 첫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sup>75</sup>

이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한 셈이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 여인 외에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다. 이 여인의 값 비싼 향유를 붓는 행동에서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의 참 제자의 일을 한 것이다.<sup>76</sup>

위에 열거한 여성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여성을 인간취급을 안하던 사회에서 주님은 여성들을 존중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주님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주님의 남, 여성의 리더십 평등사상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 3. 여성들도 최후 만찬에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만찬에 12 명의 남자사도 이외의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견해의 가장 광대한 소개는 Quentin Quesnell의 “마지막 만찬의 여성들” 이란 글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나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여성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는 전제하에 Quesnell 은 마지막 만찬에서 가르쳤다는 내용에 오로지 12 사도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다고 한다. 사실은 눅 22: 14 [마지막 만찬]에 “사도들“ 이란 단어에 몇 가지 본문의 차이점들이 나타 난다. 고대문서에 “사도들”이라고 했던 것을 후에 열둘(twelve)로 고쳤다. NRSV 번역에는 “사도들(apostles)”이라고 번역했다. 눅 22:28 에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이라 하였으니 만찬 손님 가운데에도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가장 신빙성 있는 논쟁은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눅 22:13). 유월절

<sup>74</sup> 김지철. *성서해석학적 고찰*, 111.

<sup>75</sup>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75.

<sup>76</sup>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181-182

식사는 항상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이다. Joachim Jeremias 도 마지막 만찬에 여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란다.<sup>77</sup>

#### 4.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여성들이 함께 있어 주님이 운명하심을 목격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예수를 죽게 한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루된 사람은 다 남자들이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예수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굉장했다. 예수는 여성들을 가르쳤고 여성들을 위해 싸우셨다. 주님과 여성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의 쓰라린 죽음의 마지막까지 따라가며 아픔을 함께 체험하며 울었다. 그들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공관복음서가 모든 여성들이 예수의 죽음과 장례 때 참석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마 26: 56; 막 14: 49; 눅 23:49; 요 19:25-27; 막 15:42-47; 마 27:5-61; 눅 23:50-56). 위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이런 행동은 충실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여성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 5.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예수 사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달아났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 당국은 선동가들로 보이는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매질한 후 그들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는 일에 아주 신속했기 때문이다(참조. Josephus, B.J. 6, 300f). 그래서 예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서있는 일과 부활절날 무덤에 가는 일은(막 16:1-8) 처형당한 인물[예수]과의 유대를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 근처를 떠나지 못했고 무덤에도 갔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경험(막 16:1-8; 요한 20)은 소명의 현현(a vocational epiphany)이라고 부른다. 예수운동이 예수의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다른 여인들의 용기와 활동 때문이었다고 본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 생전에 또는 그의 사후에 예수를 추종 했던 여인들은 예수의 예언적인 메세이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다고 보겠다.<sup>78</sup>

Moltmann 에 의하면 “여자들은 그의 죽음을 목격한 마지막 사람들인 동시에 그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많은 여자들은 주님께 환영받았고 치유 받았다. 지배와 노예화가 없는 상호 봉사의 친교를 통해서 여자들이 예수의 봉사와 죽음과 부활에 가까웠다. 이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 공관복음서에서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를 위해 서 행한 일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수의 여자들이 그곳에서 있었고 그가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sup>77</sup>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112.

<sup>78</sup>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241-242.

것이다. 그들은 남성제자들 처럼 도망가지 않았다. 여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에 가까웠고 이들 없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신뢰할만한 증인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sup>79</sup>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나 현재나 대우 받지 못할 병든 여성들과 동지, 친구, 제자관계를 이루셨음을 보았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에서 인간의 종교적, 사회적, 성차별로 만들어진 모든 틀을 깨버리고 죄인도, 세리도, 여자도, 남자도, 병자도,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리더가 됨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사셨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여성들과의 이런 좋은 관계와 그가 인정한 여성의 평등한 리더십이 그후의 가부장적인 선입견과 차별 속에 묻혀버렸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통하여 이미 모두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도 지적했다. 예수님의 남녀 리더십의 평등성에 대한 그의 실천과 가르침이 후대에 사도 바울과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현대교회들의 남녀 리더십 평등성에 대한 지침과 원칙이 되었음을 보았다.

## 결론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우월과 열등한 관계로 창조하셨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않다고 믿어 여성차별의 근거로 삼아온 창조설화 본문들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교회가 남녀 불평등의 근거로 삼아온 사도바울의 말로 알려진 본문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과 후대삽입으로 보는 입장과 그 말의 배후를 발굴해 내어 어떤 특수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겠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사도바울의 남녀평등에 대해 원칙이 되는 본문들을 소개하고 사도바울이 나란히 함께 사역한 여성동역자들을 소개함으로써 재래의 남성 우월주의자에서 여성평등주의자, 여성해방자로 바울의 본심을 찾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녀성의 평등관계에 대한 본문들을 소개하고 여성들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최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제자와 사도로 삼은 그리스도의 여성평등에 대한 가르침과 그의 실천이 바로 사도바울의 남녀 평등사상의 배경이고 원칙이 되었다는 사실을 재인식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과 사도바울과 예수그리스도의 남녀의 평등성에 대한 진실을 교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왜곡해 왔는가를 지적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 왔다. 그러나 성경을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나,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구적 해석만을 고집하여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자주 억압의 근거가 되어 왔다.<sup>80</sup> 그래서 많은 남,녀

<sup>79</sup> Jurgen Moltmann, *The Way of Jesus Chris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46-147.

<sup>80</sup> 나현숙 공저, 131.

신학자들은 여성에 대한 특정한 성서본문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그들은 성서가 남녀의 종속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를 주장한다고 보며 하나님께서 남녀 불평등의 현실을 원치 않으시고 남녀가 평등하게 리더십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를 둔다: 1) 창 1: 26-28 에 하나님은 남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평등하게 축복하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 2) 신, 구약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억눌리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백성들을 풀어주시는 해방자이시다(눅 4:18-19). 출애굽 사건은(출 3:7-10) 그 좋은 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난과 억압과 죄에 갇힌 민중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눅 4:18 -19); 3)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비(compassion)하신 분이시다. 그들은 고통하는 백성 속에, 노예들 속에, 버림 받은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시며 여성들을 남성들과 평등하게 대우하신다.

그러나 오늘도 한인교회 창립예배나 장로, 집사 안수행사에 가면 행사에 참여하는 리더팀이나 강사팀과 안수받는 사람들이 남자일색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본다. 당회원이 남자일색인 교회도 많다. 여성교회 헌신예배에 여성 강사보다 남성 강사가 초청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애써서 여장로를 공천해 놓으면 여자들이 여성 리더십을 인정 못한다며 여자후보를 떨어뜨린다고 한다. 여성들이 장로 취임을 거절해서 남자일색의 당회가 되기도 한다고 여장로가 없는 것은 여자들의 책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왜 그런가?

남성들은 여자를 지배하는 습관에 젖고 남녀 리더십의 불평등성이 정상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 같고 여성들도 교육수준과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 없이 너무 오래 지배를 받다보니 남녀 불 평등을 정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남자일색의 리더십 형태에 대해 별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떤 여성들은 나는 장로를 안해도 충분히 집사로, 평교인으로 교회를 섬기니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 남녀관계가 불평등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해서 여성들을 리더십에서 제외함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남녀평등원리와 예수그리스도의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원칙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McCormick 신학교 학장인 Campbell 은 여성이 온전한 인간임을 부인하거나, 말살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원적” 이 아니고 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신과의 관계를 반영치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온전한 인간성을 주창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신적(Holy)이고 진정한 신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고 구원 받은 공동체의 사역이라고 주장한다.<sup>81</sup>

그러므로 교회안에서 남녀리더십(목사, 장로)의 평등성 문제를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제이고, 남녀관계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

<sup>81</sup> Cynthia Campbell. *Theologies Written From Feminist Perspective* (Louisville, KY: OGA, PC/USA, 1987), 22.

문제이고, 성서적인 문제 이고, 신앙적인 문제이고, 구원 문제이고, 정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성들을 성차별하여 리더십에서 제외해 온 많은 한인교회는 사도바울과 예수님의 평등사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여성들의 존엄성과 권리와 너무 오랫동안 부인되어온 교회 리더십의 역할의 회복을 위해 협력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고 새로이 해석하는 노력을 하며 지금까지 우리들을 묶어 놓았던 문화적인 선입견과 신학적인 사상의 감옥문을 깨고 나와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본다.

남성들은 수천년동안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리더십에 소외당해 온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자신들이 여성들을 성차별하는 교회와 문화체제의 일원으로서 원했던 원치 않았던,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차별의 원인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성들도 남성들 입장에 서서 그들도 문화의 희생양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해방을 체험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제외하는 문화와 교회체제에 대해 낙담하고 포기하거나 규정 사실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남녀를 평등하게 지으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여성들을 해방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위에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여성들을 격려하고 높여주며 여장로, 여목사를 인정해 주며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여목사, 여장로의 리더십을 자랑스럽게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남녀 모두가 우리의 풍습과 문화의 희생양이니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잃어버린 평등을 회복하는 치유를 체험을 했으면 한다. 이것이 미국의 한인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숙해가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제 21 세기를 향한 NKPC 의 비전 선언문대로 만인제사장직 개혁신앙을 회복하여 “교회 리더쉽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모두 함께 제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노력에 우리 주님의 격려와 도전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비는 바이다.